

주제발표 3

인문학, 기독교 그리고 대학의 정체성

신 현호(백석대 교수, 기독교인문학연구소장)

I.

전통적으로, 인문학은 인간 문화, 더 넓게는 인간조건의 측면들과 관련된 학문분야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왔으며 인문학도들과 학자들이 관심 갖는 이슈들은 궁극적으로 인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가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온갖 잠재적인 학문분야와 다양한 형태의 주제 및 방법론을 극히 폭넓게 포괄하는 것이어서, 현실적으로 무엇이 이에 해당되고 무엇이 해당되지 않는가를 명확히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떻게 인문학은 사회과학과 구별되는가라는 문제가 그렇다. 이론적으로 둘 사이의 경계가 아무리 명확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경계는 종종 놀라우리만큼 유동적이다. 나의 전공인 영문학도 전통적으로 인문학 분야이지만 문학과 사회가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 때문에 문학에서도 사회과학 이론을 도입하여 사회과학 학문의 관행을 따르면서 연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따라서 인문학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애매함이 따르지만 나는 전통적으로 인문학의 범주로 받아들여 온 철학, 역사학, 문학, 어학, 예술 분야 등에 한정해 인문학이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인간성”(human nature)을 기본 원리로 하는 인문학은 명백하게 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일부 인문학자들은 인문학이 연구방법론상 무신론에 근거한다고 주장하며 어떤 학자들은 그것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인간은 본질적으로 신과 무관한 관계가 아니며 인간 공동체의 역사에서 인간은 종교와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다. 그러므로 종교에 대한 탐구는 인간을 이해하는 근본적 지식을 제공하고 인간에 대한 탐구로서의 인문학을 이해하는 토대를 만든다.

세계 종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힘을 발휘하고 있는 기독교는 서구 인문학 형성과 이론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하나님 유무에 대한 논쟁은 인문학의 흐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도 기독교의 영향이 사회에 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우리나라 인문학의 연구사를 볼 때에 많은 인문학 개별 학문들이 그 방법론에 있어 서구에서 유입된 것에 바탕을 두고 있어 우리나라 인문학에 있어서도 기독교가 차지하는 비중을 소홀히 다룰 수 없기에 인문학과 기독교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는 인문학 연구에 있어서 불가피한 과제중 하나이며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다. 또한 인문학가운데 중요한 문학 분야에서 우리나라 대학 현실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영문학을 인문학과 기독교와의 관련성 속에서 살펴보는 것은 의의 있는 일이며 그리고 인문학을 교육하는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 현실과 연계하여 고찰하는 것 또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먼저 대학의 정체성과 인문학과의 관계를 살피고 두 번째로 인문학을 기독교 관점에서 살펴보고 끝으로 이럴 경우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리스도인 학자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II.

요즈음 대학교육의 모든 영역이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여전히 대학 교육에 대한 수요는 높고, 등록학생수도 만만찮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외적 건강 징후가 대학 교육의 문제점들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육을 추구할수록, 대학 교육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의견 일치를 이루기가 더 어렵기 때문이다. "대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일관된 정의의 부족과 공유할 수 있는 비전이 사라져가고 있다. 교육목표의 화려한 수사와 수많은 정책 선언문을 내세우면서도,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며, 어떻게, 혹은 무슨 목적으로 교육하는지에 대하여 대학마다 일치된 합의가 없고, 심지어는 종종 같은 대학 내에서조차도 구성원들마다 의견들이 다르다. 대학이 해야 할 일이 일차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것인가, 아니면 학생들의 학습을 증진시키는 것인가?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를 잘 받아들이는 건실한 시민을 배출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러한 가치를 문제 삼는 비판적 지성을 형성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유용한 신기술을 창조하고 글로벌화 된 기업경제에 적합한 근무기술을 갖추도록 하게 하는 것인가? 더 나아가 학생과 교수를 학문공동체내의 선후배 관계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은 근본적으로 정보가 거래되는 시장의 서비스 소비자와 제공자의 관계인가? 교수의 고유한 역할은 무엇이며, 대학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는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등에 대해 의견이 상충하거나 분분하다. 이것은 추상적 명분만 있을 뿐 구체적 실행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기독교대학들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학들은 점차 품질과 무관한 생산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비인간적인 "지식공장"으로 진화하고 있는지도 모른다(Aronowitz 3). 점차 대학이 사회 내에서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하기 어려워지고 있다(Readings 2)

어느 정도 대학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회의 추세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 인구구성의 변동, 기술적인 혁신, 세계화의 정치 경제적인 효과 등 여러 현실 요건들은 끊임없이 대학의 기존 구조와 관행을 소멸시키려 한다. 한 가지 자주 토론되는 예로, 지난 10여 년간 정보기술의 혁명은 교육과정에 대한 견해와 그것이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변화의 정당성을 옹호해 주고 있다. 어떤 이들은 전통적 강의실과 캠퍼스에 기반을 둔 학습은 점차 적절하지 않게 될 것이며, 인터넷이나 기타 컴퓨터 기반의 전달시스템을 이용한 "가상학습" 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말한다.

대학이 현실적인 시대의 흐름에 쫓겨 일관된 정체성과 목적의식을 끌어낼 건실한 문화적 기초나 뼈대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전통에 대한 가치 부여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즉 과거와의 연결의식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는 의미와 정체성을 지탱하여주는 원천이자 권위의 근거였고, 문화를 형성하는 자원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현재와 과거의 단절은 종종 현대화라고 불리는 현상을 통해 나타나는 데 각기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다양한 속도로 일어나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되었다.

서구에서 이러한 전통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변화적 도전은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 불란서혁명과 산업혁명의 시기에 일어난 커다란 정치적, 사회경제적 지각변동과 연결되어 왔는데, 이 혁명은 소위

“구체제”(ancient regime)의 경직성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위하여 예부터 존중되어온 유산들을 거부하며, 질서와 안정 대신 진보를 최고의 사회적 미덕으로 삼았다. 따라서 1792년 왕정을 폐지한 불란서혁명이들이 그 해를 “서기 제1년” (Year I)으로 표기하는 새로운 달력을 채택함으로써 문자 그대로 시간을 다시 시작하고자 하였다. 과거는 뒤떨어진 것이며 전통은 진부한 것으로 여기며 새로운 것에 대한 탐구에 몰두하며 문화의 정체성보다는 변화에 주목하는 현실에서 대학 교육은 정체성에 대한 논의보다 현실에 발 빠른 대응에 힘을 쏟고 있다.

대학의 전통적 기능중의 하나는 세대 간을 중개하는 문화의 전달자로서의 기능이였다. 과거 이러한 기능에 충실했던 듯 보이는 것은 인문학이였다. 역사의 연구는 과거에서 현재로 계속 진행되는 과정을 그려내는 도구를 제공하였고 문학과 인접 학문들은 과거시대의 문화적 구성물들을 그 자체로서나 역사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분석하는 도구를 제공하였다. 철학은 시대의 틀을 형성하는 사고체계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었다. 심지어 인문학은 변화가 자연스러운 것이고 때로 유익하며 사회를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이끌 수 있다는 확신에 찬 진보세력에게도 필요한 이론의 틀을 제공하였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변화가 너무 광범위하고 그 속도가 너무 빠르며 패턴이 너무나 복잡해져서 이제 그것을 정확히 그려내기가 거의 불가능해지고, 또 현재조차도 과거처럼 낯설어지게 되는 옛 버전을 마스터할 시간도 채 갖기 전에 모든 사회적 문화적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행하여지는 상황에서, 방향성을 제시하여 줄 수 있는 무슨 공통된 준거 틀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의지할만한 공통된 과거가 없다면, 절대적 진리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대학교육이 문화적 방위를 가늠할 신뢰성 있는 이정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아니면, 대학교육은 서로 상충되는 이익관계의 혼란을 단순히 반영하는 데 만족해야 하는 것일까? 이것이 오늘날 대학 교육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일으키는 이유 중 하나일 지 모르겠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글로벌화한 사회가 자신을 지탱하는 과거와의 문화적 관계를 상당부분 잃어버렸다면, 상호 공유하고 있던 객관적 진리의 존재에 대한 확신 또한 상당부분 잃어버린 것이다. 소위 포스트모던 사회의 특징은 다원주의와 상대주의로, 가장 두드러진 문화적 태도는 회의주의일 것이다. 진리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며 경험적으로 검증될 수 있다는 과학적 합리주의가 의문시되고 있다. 의미와 진리에 관한 어떠한 절대 우위적 주장도 점차 불신하게 되었으며, 진리의 개념은 점차 평등화되고 실용적인 것이 되었다. 어떠한 특정 시각도 다른 관점에 대하여 내재적인 우월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오직 의견만 존재할 뿐, 선험적인 진리란 없다. 그러므로 나는 나대로의 견해가 있고, 상대방은 상대방대로의 견해가 있는 것이어서, 어떤 견해가 유력할지 결정짓는 주요 요인은, 어떤 형태로든 어떤 원천에서 나왔건 간에, 누가 자기 견해를 강제할 필요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이 대학교육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 함축하는 바가 상당하다. 현대화와 글로벌화의 역학이 일관된 문화적 가치의 전달자로서의 대학의 기능에 문제를 제기하고, 절대 진리에 대한 회의론은 도덕적 인격과 가치를 함양하는 대학의 임무에 도전하고 있다. 그 결과 대학이 “가치중립적인” 학문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점차 용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대학에 무슨 할 일이 남아 있는가? 대학이 추구하는 진리와 지성은 어디로 귀착해야 하며, 무슨 근원에 의지할 것인가? 이 물음에 어떤 명쾌한 답변이 나올 것 같지 않다. 전 세계 대학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현실적 표준이 되어 버린 하버드대학교의 교육의 기본공식은 교수와 학생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도록 허

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서울대학교도 이 제도를 일부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대학교육과 사회전반에 작용하고 있는 이러한 변화를 피하거나 외면할 수만은 없다.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 대학 행정과 교육과 연구 사이의 서로 다른 기대와 요구와 주장들에서 야기되는 문제와 씨름하지 않는 대학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전통과의 일관된 관계의 상실과 서로 공유하던 객관적 진리에 대한 믿음의 붕괴로 야기된 대학 교육 정체성의 위기가 가장 격렬하게 논의되는 곳이 인문학 분야라고 말한다 해도 아마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실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상대주의를 가장 영향력 있게 천명한 것 중 상당수가 이 분야에서 행하여졌다. 몇 가지 예만 들어보면, 자크 데리다 (Jacques Derrida), 미셸 푸코 (Michel Foucault) 및 동시대 사상가들이 관련된 “해체비평”이나 기타 새로운 형태의 비평이론과, 인종, 계급, 성이라는 이제는 제법 친숙하게 된 이러한 것에 근거한 소위 “문화연구”의 확산이 이에 속한다.

지금까지 기독교세계관을 대학교육에 반영하여 가르쳐 왔던 기독교인들은 계몽주의로부터 내려온 지배적인 지적 풍토와 싸워야만 하였다. 즉, 과학적 자연주의를 진리추구와 진리에 대한 정의의 온당한 모델로 삼고, 신앙적 관점은 사적의견의 영역으로 추방해 버리려 하는 지적 경향과 맞서 대항해야만 했다. 그러나 최근에 그 풍토가 변하였다. 많은 대학교육 영역에서 상대주의가 팽배하여 점차 주도권을 쥐게 됨과 아울러 진리와 의미의 표준이 객관성에서 자신의 정체성으로 옮겨감에 따라, 이제 대학 교육에 종사하는 기독교인들은 새로운 낯선 환경을 맞아 대처해야 하는 것이다. 기독교적 관점을 배제할 분명한 주도적 패러다임도 찾아볼 수 없고, 그렇다고 기독교적 관점의 타당성을 주장할 근거가 될 만한 의미의 공유도 없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III

자신의 과제들을 무엇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던 간에 기독교 학자들은 대개 대학의 구성원인 이상, 대학 교육 현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다. 기독교학자 대부분은 그러한 대학의 산물이다. 기독교학자 대부분이 전문적 학위를 취득한 곳이 바로 대학이었으며, 학문에 접근하는 방식도 학문이 대학에서 조직되고 실천되는 방식에 따라 채색되었다. 기독교 학자들은 기독교대학이나 소위 세속화된 대학에서 일하고 있고, 일해 왔고, 앞으로도 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각자 속한 환경으로부터 받게 되는 변화의 기운들을 무시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나는 기독교 학자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다원주의 및 비일관성을 주어진 것으로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현상을 무비판적으로 포용하지 말아야 하며, 반대로 그것을 무시하거나 회피해서도 안 된다. 우리의 과제는 최종적으로 더 좋은 방식을 모델로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가 모색하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 교육목적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현시대에 효과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목표에 부합한 교육적 실천인 것이다(Plantinga Jr 201). 우리는 다양한 역할에서 이러한 삶의 모범을 보이도록 부름 받았다. 가르치는 자로서 우리는 학생들에게 이 세상에서 소명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지성과 감성의 습관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학자로서 우리는 각자 특정한 학문분야의 관심, 대학의 관심, 그리고 사회의 난제들을 다루도록 부름 받았다.

이러한 과업에서 인문학은 무슨 역할을 하여야 하는가? 우리가 위에서 “효과적인 기독교인의 삶”에 대하여 말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경제적, 직업적인 성공과 개인적 경건을 결합하는 것 이상의 삶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이 크고도 광범위한 목표는, 많은 경우 기술훈련이 필요하고 요구된다 하더라도, 그저 그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넘어설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또한 좁은 의미에서 교양교육과 보통 연관되어 있는 기술들, 즉 추론과 분석의 기술, 언어와 수사학 기술 및 기타 등등도 넘어설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모든 삶의 분야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부름 받았기에,” 기독교 교육의 과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연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Plantinga Jr 199). 우리에게 관한 지식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가 사는 세상에 관한 지식을 아우르는 풍성한 지식의 짜임이 앞서 말한 기술을 보완하고 거기에 침투해 있어야 한다. 진정한 기독교 교육은 성경적 신앙과 그것을 표현한 전통을 풍성하게 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하며, 학생들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세상의 문화적, 사회적 습관들을 분별하고 당대의 욕구와 이슈에 대처하도록” 무장시켜야 한다.(Plantinga Jr 207-208).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로서, 사회적으로는 타인들과 복잡한 관계의 망 속에서 사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도록 학생들을 이끌어야 한다.

인문학은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수단을 제공한다. 특히 세계와 자신에 대한 폭넓은 지식으로 학생들을 초대한다. 자신을 알리는 소크라테스의 명제는 수천 년 동안 교육계의 뜨거운 화두였다. 인문학은 인간이라는 말이 뜻하는 다양한 의미 차원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기인식의 추구에 불가피하게 따르는 많은 중차대한 이슈들을 제기한다.

분석의 특정한 대상이 무엇이든지 모든 문제는,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인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온전히 인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여야 하는가라는 궁극적 물음으로 되돌아온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묻는 것은 또한 “나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묻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학문분야의 전형적인 사고 습관은 최상의 경우 기독교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그자체가 진정한 기독교 세계관의 반영이 된다. 결국 기독교는 핵심적으로 깊이 육화된 진리의 이해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문학은 많은 기독교 교육의 목표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인문학이 다루는 문제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조명 받아 자아와 세상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한다. 더욱이 인문학이 중요한 것은, 인간 경험의 모습과 인간 문화의 다양한 짜임에 대한 집중이 기독교 신과 세계관의 핵심요소들을 그토록 깊게 반향하기 때문이다.

대학 교육에서 인문학의 가장 명백한 역할은 교과과정의 구성요소로서의 역할이었다. 대학 교육의 교양교육 모델이 역사적으로 인문학을 기초로 삼아왔지만, 이제 인문학은 더 이상 그 중심역할을 못하고 있다. 많은 경우에 실제로 교양교육의 교과과정 내용을 지배하는 것은 생산자(교수)와 소비자(학생)간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거한 소위 “맞춤형” 시스템이다.

그러나 기독교 관점은 이러한 접근에 동조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양성하려고 한다면, 학생과 교수가 그들의 시민적, 직업적 추구의 틀이 되는 의미와 개인적, 문화적인 정체성의 근본문제와 씨름할 수 있도록 광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인문학 연구는 그러한 광장중 하나를 제공한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문학 연구의 특정한 구조나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개개의 대학과 교육목표의 맥락 속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필요성은 주목되어야 한

다.

인문학은 하나의 학문분야로서의 역할을 넘어, 개별 학문 분야의 초점에 상관없이 전 교과과정에 공헌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인문학은 우리 자신과 세계를 전체로서 바라보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이런 전체적 입장의 강조는 모든 학문분야에서, 심지어 극히 전문화되고 기술적인 분야에서도 종합적 관점으로 온전한 사람을 세우도록 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일깨워준다. 철학, 역사, 예술, 문학에서 인문학이 대면하고 있는 의미와 목적의 문제는 다른 학문분야에서도 그것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기독교인과 교육가로서 우리의 책임의 중요한 부분을 유기하는 것이다.

지식과 기술은 진공상태에서 발전되지 않으며 항상 사회적, 제도적, 문화적, 도덕적 콘텍스트를 가정한다. 나의 전공분야인 독일사에서, 인간 본성 및 도덕적 가치를 희생시키고 전문적 기술에 집중하여 가공할 결과를 빚어낸 숙련된 전문가의 예를 찾기 위하여 굳이 멀리 갈 필요도 없다. 몇 년 전 한 유명 의학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예술과목이 관찰과 진단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예술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요구되는 기술이 진찰실에서 실제적인 유익을 끼친다는 말이다. 그러한 프로그램은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를 단순히 병에 걸린 사람이나 엉망이 된 신체기관의 소유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의 인격체를 갖춘 인간으로 보고 진료하는 훌륭한 의사들을 배출한다”고 한다 (www.nytimes.com/2006/04/17/arts/design/17sina.html). 진정한 교육은 정보와 사고를 상황적 맥락에서 이탈된 고립된 사건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맥락 속에서 그것이 가지는 생명력을 찾는 일이다.

인문학은 학문분야에 관계없이 가르치는 사명을 가진 모두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의학과 마찬가지로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인문학적 초점이 필수적이다. 우리의 전문영역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근본적으로는 사람을 교육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 과목내용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목적에 대한 수단이지 목적 그 자체는 아니다. 핵심적 관계는 선생과 학생간의 관계이지 선생과 교과목의 관계는 아니다. 인문학을 가르치는 교수들도 이 사실은 간과하기 쉽다. 문학이나 철학, 역사 및 예술에 있어서도 현란한 지적 주장을 통해 지식을 전수하는 데만 치중하여 깊은 교육적 목적을 희생시키기가 너무 쉬운 것이다.

우리는 지적발달과 더불어 도덕성 함양에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 교과목의 내용과 지식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데 필요한 덕목들에는 다른 무엇보다 정직, 창의성, 공감능력, 청지기 의식, 공휴, 정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가르치기보다는 감염되는 것이다. 그것들은 교과목의 사실적 내용을 통해서 보다는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 교수들이 보여주는 모범을 통하여 전이된다. 인문학의 과제 중 하나는 모든 학문분야가 어떤 식으로든지 직면하게 되는 도전, 즉 지식을 전수하는 과정에서 인격을 양육하는 방법을 발견하는 것이다.

교과과정과 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직간접적인 역할이외에 인문학은 교수로서의 우리의 직업적 정체성과 실천을 늘 점검하도록 일깨운다. 인문학의 하나의 특징은 끝이 열려있다는 점이다. 인문학은 어떤 단 하나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이나 방법론에 순복하는 일은 거의 없으며, 해결된 결론을 만들어내는 일도 거의 없다. 오히려 서로 다투는 해석과 접근방법이 같은 분야에서 공존하는 현상이 전형적이다. 일상생활에서처럼 각기 사물을 달리 인식하고 다른 의미표준을 갖게 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관찰자

들마다 각기 다른 결론을 내리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인문학에서 나타나는 학문의 연구 경험과 보통사람들의 경험사이에는 자연스러운 유사점이 있다. 둘 다 공히 주관적 평가나 종종 불완전한 증거에 근거하여 결론을 내려야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겸손의 덕목이 필요하게 만든다. 우리 모두는 자신에게 명백하고 자명하게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매우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당연한 사실로서 내린 결론이 새로운 통찰과 변화하는 환경 하에서 다시 고려해야 할 경우가 있을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인문학은 기독교인들에게 특정한 몇몇 학문분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 학문적 활동에 걸쳐 있는 이슈들을 제기하고 가능성을 제시한다. 역사 텍스트의 분석이나 문화적 구성물의 해석, 또는 문예 작품의 연구 등에서뿐만 아니라 전 교과영역에 걸쳐, 많은 기본 관심사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다루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일에 대하여 우리 학생들과 학자이자 교수로서의 우리의 소명과, 그리고 특히 대학 및 사회 전체에 빛지고 있는 셈이다.

참 고 문 헌

- Aronowitz, Stanley(2001). *The Knowledge Factory: Dismantling the Corporate University and Creating True Higher Learning*. Boston: Beacon Press
- Barry, Ulanov(1960). *Sources and Resources: The Literary Traditions of Christian Humanism*. Westminster: Newman.
- Bush, Douglas(1939). *The Renaissance and English Humanism*. Toronto: Univ. of Toronto Press.
- Plantinga Jr., Cornelius(2002). *Engaging God's World: A Reformed Vision of Faith, Learning, and Living*.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 Readings, Bill(1997). *The University in Ruins*. Harvard: Harvard UP.
- www.nytimes.com/2006/04/17/arts/design/17sina.html
- Wells, Ronald A ed.(1998). *History and the Christian Historian*.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